

목포,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협상 완료

주민편의시설 설치·운영비 절감 최종 합의

KDI, 기재부 등 검토... 실시협약 체결 예정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근 완료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목포에코드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협상해왔다.

6개월 간의 실무협상과 본 협상 끝에 총사업비는 원활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기존 838억 7,000만원보다 140억원을 증액하고, 운영비는 123억원을 감액하는 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총사업비 증가분 140억원에는 시민단체 요구사항인 홍보관(15억원)과 전광판(1억원) 설치비를 비롯해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확대(93억 5,000만원)와 통합환경인허가 범위 확대(1억 5,000만원), 처리비 절감을 위한 비산재 고형화 설비(12억원) 등이 포함됐다.

운영비는 인건비를 증액(1억 9,000만원)했으나, 제 경비(1억 3,000만원)와

유지관리비(77억원), 보험료(31억 7,000만원) 등을 감액해 123억원을 낮췄다.

결과적으로 시는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등 추가 재원을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대신, 설계기준(발열량) 강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21억원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한편 비산재 고형화설비 도입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당초 제안한 톤당 사용료 11만 3,626원보다 3,293원 감액된 11만 333원의 유리한 조건을 도출해냈다.

앞으로 시는 협상결과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이 올해 6월말 현재 98% 매립돼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태다. 시는 매립장의 수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1일 약 45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2018년 9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정부 민간투자사업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시의 직접적인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받은 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완도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완도전북ASC협동조합의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전북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추가

39개소 '세계 최다'

완도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완도전북 ASC협동조합의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ASC 생산자 인증으로 완도군이 직접 인증 희망 어가 조사부터 교육, 컨설팅, 심사 등 전적으로 관리했다.

이중은 대표 외 7개소의 어가로 이뤄진 협동조합과 컨설팅 업체 아쿠아 프로(대표 윤지현), 완도군과의 협업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완도군은 이번 8개소 인증을 포함해 전북에 대한 ASC 인증을 총 39개소에서 획득하면서 '세계 최다 ASC 인증 최대 보

유군'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인증서 수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심사기관인 컨트롤유니온 대신 신우철 완도군수가 전달했다.

한편 ASC 인증을 받은 완도 전북이 국내 대형 마트인 롯데마트(5개소)에 최초 입점하게 됨에 따라 이날 ASC 인증 활성화 및 생산·유통 분야 협력을 위한 완도전북(주)와 완도전북 ASC협동조합의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북 ASC 인증 추가 획득과 대형마트 입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완도 수산물에 차별화를 두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흑산홍어잡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복원·계승 예산 7억 지원

브랜드 가치 향상 기대

흑산 홍어잡이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국내 11호, 전남 6호로 지정됐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흑산도에서 진행된 현장평가 실시결과 최종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따라 홍어잡이 어업의 계승과 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신안군은 3년간 흑산 홍어잡이 어업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 7억을 지원 받는다.

흑산홍어 브랜드의 가치 향상과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신안군은 흑산 홍어잡이 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했으나, 어선적수와 총허용어획량(T.A.C)의 불량부족으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동안 흑산 홍어잡이 어선적수 증가와 T.A.C불량 추가 확보 등에 따라 지난 7월 서류평가를 시작으로 최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홍어잡이 방식 중 '주낙' 방식으로 흑산도 일대 연근해 어장에서 행해지는 전통어법이다.

지난 1980년대부터 한 개의 고리(약 90m)에 바늘 450개를 연결하고 미끼를



흑산 홍어잡이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국내 11호, 전남 6호로 지정됐다. /신안군 제공

끼우지 않는 '갈낙' 방식으로 변화했으나 주낙을 이용하는 전통어법 방식은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흑산 홍어잡이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

계적 관리와 보존을 통해 흑산 홍어의 어족자원을 보전하겠다"며 "어업 유산을 지역관광 상품자원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진도, 어항시설 현대화 추진
방파제 정비 등 1,439억 투입

진도군이 국가어항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 지역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에 1,439억원을 투입한다.

사업별로는 수품항 497억원, 초평항 490억원, 서망항 332억원, 서거차항 120억원 등이다.

오는 2025년까지 방파제, 물양장, 준설, 해수 소통구, 유동·가공·판매시설 등 시설 정비와 함께 어항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다가능 어항으로 개발한다.

서망항은 항내 안전 확보를 위한 방파제 보강,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소통구 설치, 어업활동과 안전 접안을 위한 물양장 확장, 항내 준설 등을 추진한다.

국내 최대 물길 위판 특화 어항으로 개발되는 수품항은 외곽시설과 어업인 물길 위판 편의를 위한 접안시설을 신설해 물길 위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초평항 건설사업은 인근 회동항의 물길 위판시설 부족에 따른 지원시설 배치, 물양장 신설 등을 통해 어선 대피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2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서거차항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많이 접안하는 어항임에도 접안시설 부족 등으로 정비가 시급해 물양장 정비와 동·서방파제를 보강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어민 소득 증대 및 어항·어촌을 테마로 하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신안 압해도서 청다리도요사촌 확인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신안군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갯벌의 생물자원 발굴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중 압해도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청다리도요사촌(사진) 1개체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다리도요사촌은 국내에서도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및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청다리도요사촌은 번식지에서 월동지로 이동하는 중 체력 보충을 위한 먹이활동과 휴식을 위해 압해도 갯벌을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멸종위기 I 급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매와 멸종위기 II 급 노랑부리저어새, 흰목물떼새 등 보호종도 함께 확인됐다.

청다리도요사촌은 국내에는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나그네새로 봄철과



가을철 이동시기에 소수가 관찰된다.

해안습지 간척과 번식지 교란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최대 생존 개체수는 1,000개체 미만으로 추정 되는 종이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갯벌은 전 세계인의 소중한 유산인 만큼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다중이용시설 방역

무안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최근 읍면 대상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에 취약한 무안을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상가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은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낙지골목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손잡이 많이 닿는 입구 의자와 출입문 손잡이를 소독하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성동호 회장은 "앞으로도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무안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지역 주민들과 타지에 오신 방문객들을 위해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신안, 비금농협고속페리 이용 캠페인

신안군비금면민들이비금농협고속페리 2호의 취항을 축하하기 위해 '비금면 주민들은 비금농협 배를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비금면 청년회와 새마을부녀회 등에 따르면 가산항과 목포 북항을 잇는 비금농협고속페리 2호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증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지역 28개의 유관

기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한 달여 동안 가산선착장에서 캠페인을 펼친다.

김여남 청년회장은 "면민과 방문객들이 편한 교통 보편을 제공 받게 됐다"며 "시금지(섬초)와 천일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적기 운송으로 농가소득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신세계F&B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김치 기탁

신세계F&B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 이 최근 저소득층의 추석 명절맞이를 위해 김치 500박스를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목포시에 지정 기탁했다.

김치는 2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418세대와 드림스타트를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전달됐다.

공홍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

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이웃들이 추석 명절을 훈훈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눔을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나누며 성장하는 업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나눔이 필요한 시기에 소외계층에 온정을 나누는 신세계 F&B유한회사농업회사법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